

민수기(2)

메시지 12

영적 전쟁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됨

성경: 민 21:1-3, 21-35, 27:12-23, 31:13-54

I.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 민 21:1-3, 21-35.

- A.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이것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 마 6:10, 7:21, 12:26, 28, 사 14:12-14.
- B.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 싸우고 그들을 패배시켜야 한다 — 수 5:2-6:16.
- C. 하나님의 군대는 아랏왕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패배시켰다 — 민 21:1-3, 21-35.
 - 1. 아랏왕(민 21:1)과 아모리 왕(21절)과 바산 왕(33절)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문지기들’로서 사탄을 위해 가나안 땅 곧 어둠의 왕국을 지키고 있었다.
 - a. 하나님의 군대에 패배당한 왕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을 상징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들과 싸워야 한다 — 엡 6:12.
 - b.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왕들이 통치하는 영토를 지나가야 했으며,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해야 했다.
 - 2.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랏왕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으로 상징되는 영적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 — 엡 3:8, 6:10-12.
- D.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싸운 것은 이 땅의 보이는 장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묘사해 주며, 교회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예표해 준다 — 단 10:10-21, 엡 6:10-12.
 - 1. 구약의 예표에서 가나안은 두 방면을 나타낸다.
 - a. 긍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풍성한 땅으로서(신 8:7-10)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골 1:12, 엡 3:8)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 (계속)

- b. 부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사탄의 어둠의 왕국 중에서 공중의 부분 곧 하늘의 부분을 상징한다.
- (1) 이 세상의 왕(요 12:31)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엡 2:2)인 사탄은 권세(행 26:18)를 가지고 있으며 천사들(마 25:41)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은 사탄의 부하들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엡 6:12)이다. 따라서 사탄은 그의 왕국(마 12:26)과 어둠의 권세(골 1:13)를 가지고 있다.
 - (2) 가나안 족속은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곧 반역한 천사들(계 12:4, 7)의 예표인데, 이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능력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되었다(비교 단 10:13, 20).
 - (3)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운 것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맞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 엡 6:12.
2.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시지만,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와 좋은 땅 사이를 가로막는 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한다 — 골 1:12-13, 2:15, 엡 3:18, 6:10-12.
3.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너무나 실지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전쟁을 하는 단체적인 전투원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이 땅을 상속받으실 수 있다 — 엡 6:10-19.
- E. 주 예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이 땅에서의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는 것이다 — 히 2:14, 골 2:15, 요일 3:8.
1.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일 3:8.
 2.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동안에 사탄을 패배시키셨다 — 마 4:1-11.

민수기(2)

메시지 12 (계속)

3. 죽음을 통해 주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심으로, 사탄을 깨뜨리고 무효화하셨다 — 히 2:14, 고전 1:28.
 4. 하나님은 악한 천사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 골 2:15.
 5.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효력으로 사탄의 반역의 기반이 흔들렸고, 땅에 속한 사탄의 왕국의 요새들이 깨뜨려졌으며,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 — 마 27:51-52.
 6.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인 영 안에서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다 — 벧전 3:18-19.
 7. 용사들, 곧 이기는 이들은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 율 3:11하, 요 12:31, 계 5:5.
 - a.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는 것이다 — 엡 6:11, 13.
 - b.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계 3:21.
 8. 교회는 이 땅에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영구히 이어 가고 나타내야 한다 — 엡 6:13, 계 12:11.
- F.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몸을 알고, 승천을 알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 엡 1:22-23, 2:6, 4:16, 골 3:1-4, 롬 5:17, 21.

II. 민수기 27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되었다.

- A. 이스라엘 자손은 새로운 신정(神政) 아래 새로운 군대로 편성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 민 27:12-23.
1. 새 백성은 계수되었고, 새 군대는 재편성되고 강화되었으며, 새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봉사하도록 임명되었다.
 2. 여호수아는 혼자서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에 의해 신성한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백성 가운데 새로운 신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 민 27:19-21.
- B. 하나님의 백성은 편성되고 구성되고 징계받고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후에 모압 평원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좋은 땅 안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고 차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 민 36:13.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 (계속)

- C.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것은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된 것을 예표한다 — 엡 4:16, 6:12.
- D. 좋은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었다 — 신 1:35-36, 민 14:31.
1. 다음 세대는 첫 세대만큼 많은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첫 세대가 체험한 것의 유익을 물려받았다 — 민 26:63-65.
 2. 아마도 연장한 세대는 그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겪은 모든 것을 젊은 세대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며,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말해 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의 일부였다.
 3. 연장자들이 체험한 것은 젊은이들을 세우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부터, 풍성한 유업과 든든한 배경을 가진 육십만 명 이상의 남자들을 준비하실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될 자격을 갖추었다.
 4.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원칙은 동일하다. 연장자들이 체험한 것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고 있으며, 그것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싸우도록 그들을 세워 주고 준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E. 민수기 31장 13절부터 54절까지에서 우리는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한마음 한뜻의 아름다운 그림을 본다 — 민 31:31.
1.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의 전체 상황이 평화롭고 즐거우며 조화로웠다 — 행 1:14.
 2.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 엡 4:3-6.
 - a.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킨다 — 행 1:14, 마 18:19.
 - b.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외적으로 말하는 것에서도 하나가 된다 — 롬 15:5-6.
 - c. 한마음 한뜻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한다. 이 한 마음과 한 길이 한마음 한뜻이다 — 램 32:39.

민수기(2)

- d.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모든 교회들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같은 나팔을 불어야 하며,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실행에 있어서도 같아야 한다 — 수 1:16-18, 6:1-16, 행 2:42, 4:24, 32, 고전 4:17, 7:17, 11:16, 14:33하-34, 딤후 1:3-4, 6:3.
- F. 하나님의 군대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또한 하나님의 사 람인 모세의 축복 아래서, 좋은 땅을 취하도록 예비되고 준비되었다 — 민 6:22-27, 고후 13:14, 신 30:16, 33:1.